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2>



지팡이의 노래

부처님께서 탁발하러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가셨다가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밥을 빌러 다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당신은 이제 집에서 편히 자식들의 부양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찌하여 지팡이를 짚고 걸시하러 다니니까?”
부처님의 질문에 노인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일곱 있습니다. 다들 장가를 들었고 저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게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들들은 한결같이 저를 부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밥을 빌러 다닐 수밖에요.”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들으신 부처님께서 그에게 제언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노래를 한 곡 들려주겠습니다. 잘 외웠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대중 속에서 꼭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알겠지요?”
노인이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곧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자기 일곱 아들이 다 외웠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노래 한 곡 부르리다. 한번 들어봐 주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곱 아들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를 듣고 자식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제야 뚝뚝하게 알아챘던 것입니다. (법역집아함경 제13권)
경에는 그 뒷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다 예전의 자리에 앉혀드렸습니다. 아주 질 좋은 천으로 옷도 해드렸습니다. 예전의 행복을 되찾은 노인은 아들들이 만들어준 옷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부처님께 들고 가서 공손히 바쳤다고 합니다.
자식 여럿 있는 어머니는 버스에서 죽고, 아들 하나 있는 어머니는 현관문 밖에서 죽고, 딸 하나 있는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서 죽는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제 어머니 세대 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일곱 아들에게 버림받고 결식하던 노인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가

아들을 낳고서 너무나 기뻐 오직 그를 위해 재산을 모으고 모두 장가를 들였더니 이제는 나를 버리는구나.
말로만 부모 위한다 할 뿐 죽을 때 되니 나를 버리는구나.
말꾸우에 보리와 곡식이 가득한데도 양보하려는 마음이 없어 늙은 말을 밭아서 쫓아내는 젊은 말과 뭐가 다른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아비를 버리고 구걸하게 만드는 내 아들들은
나를 사랑하는 이 지팡이만 못하구나. 이 지팡이 있으면 개와 염소도 다루고 다닐 적엔 나를 도와주고 어른 밥에는 나의 배가 되네.
개만 지날 때면 깊이를 알려주고 넘어지면 지팡이를 붙잡고 일어나니 못된 자식들보다 말없는 지팡이가 낫네. 이 지팡이만이 나를 아껴 주고 생각하네. 노인은 노래를 완전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며

자식이 여럿 있으면 서로 모시지 않으려 하니 집 저 집 떠돌다 길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아들 하나 둔 부모는 자식 눈치 보느라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딸 가진 부모는 마지막까지 딸 내미 살림살이 살아주느라 허리가 휘다는 뜻이겠지요.
그런 희생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라고 간단히 치부된다면 자식의 마땅한 도리도 울곧게 지켜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항상 자식은 부모의 도리에 기대기만하고 스스로의 의무는 외면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행복은 생사의 거친 흐름을 건너 저쪽 언덕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번뇌요, 먼지 뿐이라며 여서 건너가라고 부처님은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처님이 사람들 품에 안겨준 행복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아서 찾아가 당연히 누려야 할 끈끈한 정이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노인은 젊은이들로 북적대는 가정으로 버려진 아이는 푸근한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피안의 행복임에 틀림없습니다.
■ 이미령(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나를 떠나 道가 있겠는가



대정 스님

(범어사 선덕)

시간이 정말 흐르고 있는 것일까? 몇 년 만에 대정 스님을 가까이 찾아뵈면서 갖게 되는 의구심이다. 3년 전 보았을 때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으로 반겨주시는 스님을 보며 수행 앞에 힘을 잃고 멍해버린 시간을 실감한다.
세수 일흔 다섯. 시자를 두고 따로 공양상을 받을 때도 하지만 대정 스님은 지금까지도 대중공양방에서 공양을 한다. 아침 6시, 대중들과 함께 비빔밥 한 그릇, 점심엔 냉수 한 그릇, 그리고 저녁엔 또 다시 비빔밥. 공양을 위해 하루 두 번 휴휴정사를 나가는 일 외엔 스님의 방문은 종재 열리지 않는다. 찾아오는 이도 없고 찾아갈 이도 없다.
대정 스님이 화두가 되고 화두가 대정 스님이 되어 묵연히 앉아 있을 뿐이다.



범어사 휴휴정사 앞에 선 대정 스님.

막혀 버리고 이 부작용으로 탐, 진, 치 삼독에 현혹이 돼 가지고 각종 업을 짓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고 확립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화두만 하면 됩니다. 화두가 바로 내 자신이나 화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두는 선의 원동력이고 정수고 중추선경입니다. 화두가 없으면 선이 안 됩니다. 이처럼 화두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좀 어렵고 잘 되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화두를 조금 해 보다가 잘 되지 않으면 금방 딴 거 찾아오.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화두를 익히려는 노력이 없단 말입니다. 화두가 내가 되고 내가 화두가 되는 것이 허투름 반박 참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도 법회 후에 잠시 참선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참선이라기보다는 명상에 가깝고 또 그 명상마저도 법회 때만 잠시 하고는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일년이고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사는 경우가 많으니 참다운 화두가 될 리가 없지요.
나의 경우도 참 잘 때도 화두가 성성하게 살아있기 시작한 것이 화두 공부 시작한 후 5년이 지난 뒤부터입니다. 그 때가 스물 세살이었는데 9월 경 모악산에 흙으로 열기설기 3행정도 되는 토굴을 짓기 시작했는데 10월이 되니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가슴까지 차올라 결국엔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어요. 인적도 없는 산속에서 쌀, 보리쌀, 참쌀을 갈아 만든 가루와 물, 그리고 술잎가루 만을 먹으며 5개월 정도를 지내며 화두 공부를 했는데 그

때부터 화두 공부에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아파서 몸을 조복 받겠다는 생각으로 문 끈어 잠고고 밤새도록 한번도 일어나지 않고 견뎌더니 다리에 쥐가 나고 풀리고를 대어섯 차려 반복하더니 괜찮아지더군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아무런 외래 없었어도 끄덕 없었어요. 그때는 한번 앉으면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날 때 말고는 일어날 일이 없고, 잠시 앉으면 해가 지고 또 잠시 앉으면 해가 뜨는데 화두는 역력했죠. 들춰 한 마리가 내 변을 먹고 함께 살았고 새 한 마리도 늘 일정한 시간에 날아와 내가 주는 가루를 먹고 날아가곤 했을 뿐 인적이란곤 없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면 한 줄로 난 호랑이 발자국이 토굴을 한바퀴 돌아보곤 간 흔적이 나 있곤 했어요.
눈이 녹기 시작하자 도반이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굴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고 몸에 살이 붙어있어 한결탈태(後身奪胎)를 했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화두에는 부처가 되고 도가 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화두가 살아 있음으로

나를 아는 것이 불교 道는 인간성이자 양심 오게 지키면 나를 알게 되고 수행하면 마음 밝아져

해서 도가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화두입니다. 알기 쉽게 말을 하자면 철학의 원조 스킨테스가 했던 '너 자신을 알아라' 했던 것이고 역대의 조사 스님들은 '너를 잊지 말아라' '너를 지켜라' 했습니다. 결코 복잡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깨쳐라'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근본은 뭐냐? 그 대답은 바로 우리 모두가 똑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있으니 모든 것이 있지 내가 없으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있으니 화두도 있고, 주님도 있고, 신도 있지 내가 없는 여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성립이 된다는 간단하고 쉬운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을 모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내 자신을 아는 것이고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 바로 나 자신이고 인간입니다. 그래서 계행을 근본으로 했지요. 사회에서도 윤리와 도덕 예의범절이 없으면 금수 갈아요. 인간이 인간다운 때 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도는 모습을 감춰버려요. 도는 인간성이고 인간의 근본이니까 이것이 바로 계행이 되는 것입니다. 계행으로 인해서 선정, 수행이

Advertisement for Dalai Lama's Dharma Teaching. Title: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Subtitle: Dalai Lama's Dharma Teaching. Content: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산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Includes event details for A, B, and C track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ilkroad (주) Silkroad 여행사.



대정 스님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바르게 깨닫는 지름길이고 그 깊은 계를 지키는 생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나옵니다. 화두 공부에 있어서도 계행은 아주 중요 합니다. 살생을 하지 않아야 자비심이 충만하게 되고 도독집을 안해야 복덕을 구축하게 되며, 삿된 음행을 안해야 청정심이 나오고, 남을 헐뜯지 않아야 진실하며, 술을 먹지 않아야 지혜가 나옵니다. 이게 안 되고서는 화두도 안돼요. 근본적인 오계를 잘 지키면 자신을 절로 알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 나니까 그렇습니다. 계행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 다음은 수행입니다. 수행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염불, 주력, 참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두는 좀 어렵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하다보면

완전한 인간성을 갖춘 분이 부처이고 성인이고 참사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마음의 안정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자신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받아인데요. 입으로 받아, 받아 해봤자 반야가 안 됩니다. 직접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이 밝아올 때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게 진짜 받아입니다. 이 반야로 인해서 견성성불은 저 절로 됩니다. 견성성불이 뭐냐? 완벽한 인간, 손색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성을 갖춘 분이 바로 부처고 성인이고 참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참사람은 뭐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알고 보면 참 쉬워요. 앞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불자뿐 아니라 인류가 대오각성하면 인간이 인간다워질 것이고 그렇

게 될 때만이 세계 평화도 있고 행복도 있고, 또 안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남을 이겨야 하겠다. 내가 앞으로 나서야 하겠다는 명예에 현혹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뜬구름 같고 허무한데 이것을 모르고 진실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의 원인은 내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짜고 헛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운통 허계비 세상이 된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정화해서 부처님을 다 만들고 부처님 국토로 만들어 다시는 인간이 지어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보자는 것이 부처님 지비이고 원력입니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세세상행보살도(世世常行菩薩道) 구경원성살 바야(究竟圓成薩婆若) 마하반야바라밀(摩訶般若婆羅蜜)이라는 발원을 많이 합니다. 세세상행보살도라는 것은 부처님 원력입니다. 보살행은 곧 자비행을 행하는 것이고, 그 자비행으로 인해 불법이 살아나고, 불법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성이 살아난다는 말과 똑 같습니다. 자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가장 쉬워요. 초등학교 책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직 사랑과 이해와 양보, 인내,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자리이타의 대승보살입니다.

크고 넓고 좋은 이 마음이 그대로 도심입니다. 보살의 정신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안 될지언정 남을 승화시키는 이와 같은 마음이 그대로 사랑입니다. 맑은 쉬운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사랑은 그만두고 절대 양보할 수가 없고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보살도 정신입니다. 사부대중 즉, 승속남녀노소를 떠나서 이것이 불교의 근본정신입니다. 수도(修道)와 전법(傳法)을 행하는 것이 구도자의 근본이며 우리 불자들이 '상구보리 회중생생' 하는 것이 바로 보살도이고 묵묵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대정 스님 법문집 출간

대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화두 공부에 전념해온 대명회보살이 스님 모르게 발간한 법문집이 세상에 나왔다. 7월에 세상에 나온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은 대정 스님이 법어사로 오신 이후의 상량법문, 금정선원 결계 법문 등 17년 동안 모아왔던 법문에서 선과 화두의 핵심을 가려 뽑아 엮었다.

스님 방 마루에 틀래 책을 올려놓고 돌아온 날, 대명회보살은 혼쫓이 났다. 그러나 나이 16세에 화두 공부를 시작해 지금까지 일편단심 화두로 살아온 대정 스님의 수행력에 나오는 향기를 전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이었으니 멈출 수는 없었다.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선의 기능이라고 대정 스님은 이 법문집에서 설파하고 있다. 깨끗함은 계행이고 고요함은 선정이고 맑은 것은 지혜라는 가르침이다. 이 법문집이 두문불출하며 묵언 정진 중인 대정 스님의 음성어 되고 모습이 되어 세인들을 만나게 됐다.

대정(大定) 스님은 1931년 대구에서 태어나 1946년 백양사 운문암으로 출가, 3년 뒤 금산사에서 유재환 스님을 은사로 보인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1959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모악산, 지리산 등지에 토굴을 짓고 생식하며 수행 정진해오다 1989년 이후 법어사 휴휴정사에 주석종인 스님은 '누가 나에게 도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나는 한번 웃음으로 그 답을 대신하겠노라'는 계승처럼 공부의 길을 묻는 구도자들에게 한번의 웃음으로 그 길을 열어 보이고 있다.



로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현음 스님

사물은 존재하고 존재하면서 존재하는 자리를 차지한다.

그 자리가 비면 또 다른 것으로 차지하지만 공간일 뿐 시간은 지속적인 자리 차지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다르다.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다. 변한 것 같으면서도 늘 그대로다. 이러한 마음은 늙어가면서 더욱 애뜻하게 느끼는 것이다. 몸은 늙었으면서도 마음은 늘 이십대에 머물러 있다. 느리진 몸을 보면서 나이를 먹었나 하지만 늙어지는 경험적 지식이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듯 마음 안에서야 생로병사가 어디 있겠는가마는 마음 밖에서는 생로병사가 있다.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 천하 종사들도 그렇게



그림·문병성

오셨다 가셨고, 현음 스님 또한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을 보았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갈 것이다.

현음 스님은 1973년 3월 송광사 보조종재일에 구산수원 스님을 은사로 수계를 했다. 행자 때 어느 수행자로 우리에게 염불과 목탁 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수계해서는 사숙이 되었다. 스님은 늘 고민이 있었다. 스님의 고민은 개인의 것이 기보다는 우리들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스님은 늘 상설수련원 운영을 말해왔다. 부처님 곁에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선 수행법을 찾아야 해매곤 했다.

우리는 한국의 대승선이 일반 불자들이 실천 수행하는 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안다. 말하자면 돈오돈수, 불립문자, 언어도단, 심행저멸, 이심전심, 일초즉입어래지 등을 강조함으로써 사상적 이해보다 언어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현음 스님은 다시 생각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로 한 것이다. 일반 불자들이 선 수행을 하기 쉽도록 단계와 차례를 찾기로 했다.

당시 송광사에서는 학교 교육을 받는 것은 속이 되는지름길이라며 금했었다. 그러나 현음 스님은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스리랑카로 유학하여 팔리어를 배우고,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수

행법을 습득했다. 스리랑카로 유학을 가서 그곳의 수행법에 자리를 잡고 잠시 들릴 때였다. 어느 때와 같이 무소들의 빨 장난처럼 서로 밀고 당기는 장난을 치다 말고 문득 같이 스리랑카로 가지 않겠느냐고 내게 물었다. 차를 마시는 방으로 왔다. 요지는 스리랑카로 유학하는 길을 알았으니 혼자 하는 것 보다 같이 하는 것이 공감대 형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빠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나는 아니라고 했다. 나이 삼십 넘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 학문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운 어린 스님들을 선발하여 유학을 시키고 그 학문을 활용하는 편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웃으면서 훗날 여건이 되면 시간을 뛰어넘는 도보 성지순례를 하고 싶다고 했다. 현음 스님은 이해하는 듯 눈으로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 곁에 계시면 나의 은사스님이, 아늑이 호강에 겨워 그렇다고 현음 스님의 힘든 유학 생활을 달래주었다.

나중에 현음 스님이 귀국해 송광사 수련회를

현대적 수행법 고민하다가 스리랑카·미얀마서 유학

말야 대승선에 위빠사나 수행법을 통한 점차적인 차제적 선수행을 가르치는데 혼신을 다하였다. 수련생들도 호응이 크고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선방의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의 수행법인 간화선은 선 수행의 최극치로서 수행특력과 수행법이 완결된 것이라며,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합친 단계적 차제 수행으로 수행력을 얻는 방법에 일회를 가하였다.

그래서 현음 스님은 자신의 수행이 부족하며 좀더 많은 경험과 수행력을 쌓기 위해 미얀마 유학을 강행하였고, 미얀마 유학중 견학에 걸려 결국 귀국하여 간경회로 이 세상살이가 마음 밖에서 오고가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스님은 고인이 되었다. 삼년 전에, 가끔 생각이 난다. 늘 생각하다 가끔 잊는 것은 마음의 기쁨이자 아픔이유이지만, 늘 잊었다 가끔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다. 망하니 생각하다가 그 생각하는 마음이 아프다.

한 여름 날 불일폭포에서 함께 하던 수행,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나 호탕하게 웃는 얼굴, 잘못 했을 때는 시끄러운 말보다 눈빛으로 일깨워 주고, 늘 '수행자' 이기를 고집했던 그 깨끗한 자존심, 육신이 무너진 그날도 놓지 않고 있던 단단한 정진력, 마음의 혼적만 남기고 존재하지 않는 현실은 작은 부도라도 있었으면 했다. 내일의 할 일로 마음을 되잡는다.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막막하지만은 않다. 한편으로는 스님의 원력이 컸기에 인도환생 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가평 아가타 보원사 주지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종 정관변경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4월 16일에 허가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은 정관 변경승인절차를 거쳐,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종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 신규복직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시설설립추가승인을 취득하였으며 이 법인의 모든 법적 권한이 조동선종, 종헌(宗憲)에 귀속되었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1. 허 가 번 호 : 2004-3(04-4-16)
2. 명 칭 :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종(社團法人韓國佛敎曹洞禪宗)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 총본산 원효사
4. 기 본 재 산 : 901,116,000원(9억1백11만6천원)
5. 목 적 : 종헌 제20조 규정, 조동선맥복원 불교발전에 기여함
6. 사 업 : 1) 조동선(曹洞禪), 선학(禪學)의 연구개발
2) 불교포교 및 사상연구
3) 국내외 학술교류
4) 조동선학의 교서출판 및 정기간행물 발간
5) 법인재산 출연, 사회복지법인, 시설 설립운영
6) 기타 본법인 발전에 필요한 사업

조동선종(曹洞禪宗)의 법통(法統)은 구산선문(九山禪門), 수미산 광조사(須彌山廣照寺) 개조(開創), 이엄진철(利嚴眞澈)선사의 조경(朝敬)인 중국강서성(中國江西省) 운거산(雲居山) 진여사(眞如寺), 조동작동(曹洞鑿統)인 조동종(曹洞宗) 49대 해음등료(海音騰了)선사로부터 사법전통(嗣法傳燈), 창종선포(創宗宣布)하고 서천(西天) 87대 동토(東土) 60대 조동(曹洞) 50대의 혈맥(血脈)과 1천여년간 단절되었던 선맥을 복원하였다.

불기 2549년 7월 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종 이사장/총무원장 今禪鶴峰 합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 TEL : (02) 704-8065, 713-0475 FAX : (02) 704-8064

Wellbe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화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캡슐)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캡슐)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